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2023년 9월 1일 오후4시
기독교회관 701호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성서정과

(성서 : 공동번역, 정과 : 대한성공회)

사회자 ✦ 류순권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KSCF 역사 자료실 간사)

본기도 ✦ 김경숙 목사 (넥타 대표 간사)

창조주 하느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시나
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여 하늘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기쁨으로 주님 얼굴을 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 ✦ 1테살(테살로니카 전서) 4:1-8 ✦ 말은이

교우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
떻게 살아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려
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피하고 각각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자기 아내의 몸을 대하고 하느님을 알
지 못하는 이교도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
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그를 속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 엄숙하게 지
시하고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서는 이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처벌하
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음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
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역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역하
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시편 97

(사회자) 주께서 왕위에 오르셨다. 온 땅은 춤을 추어라.

○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다같이) 안개와 구름에 둘러싸이고 ○ 정의와 공평이 그 옥좌의 바탕이요.

(사회자) 불길이 그를 앞서가며 ○ 에워싼 원수들을 살라 버린다.

(다같이) 번개가 한번 번쩍 세상을 비추니 ○ 온 땅이 이를 보고 부들부들 떠난다.

(사회자) 산들도 주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 초처럼 녹아내린다.

(다같이) 하늘이 그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 만백성은 그 영광을 뵈옵는다.

(사회자)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아, 허수아비를 사랑하는 자들아,

창피를 당하여라. ○ 모든 신들아, 그 앞에 엎드려라.

(다같이) 주여, 당신의 재판은 공정하시오니 시온이 이를 듣고 즐거워하며

○ 유다의 딸들도 기뻐하옵니다.

(사회자) 주여, 당신은 온 세상에 으뜸이시오니

○ 그 많은 신들 훨씬 위에 계시옵니다.

(다같이) 악을 미워하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의 목숨을 지켜주시어 ○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사회자) 바르게 살면 그 앞이 환히 트이고 ○ 마음이 정직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다같이) 올바르게 사는 자들, 주님의 품에서 즐거워하여라.

○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사회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다같이)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성경 ✦ 루가(누가) 복음 19장 30-36절 ✦ 말은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가요?” 하고 물었다.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겹옷을 엮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에 퍼놓았다.

말씀 나눔 ✦ 도방주 (대한성공회, KSCF 총무)

주의 기도 ✦ 다같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인간됨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양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이라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국내 대학·학원 선교 공식 위임



대한성공회

Anglican Church of Korea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기독교대한복음교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구세군대한본영

The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KSCF 국제 관계

세계기독교학생회총연맹 WSCF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세계기독교학생회총연맹 아시아태평양
WSCF-AP**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sia Pacific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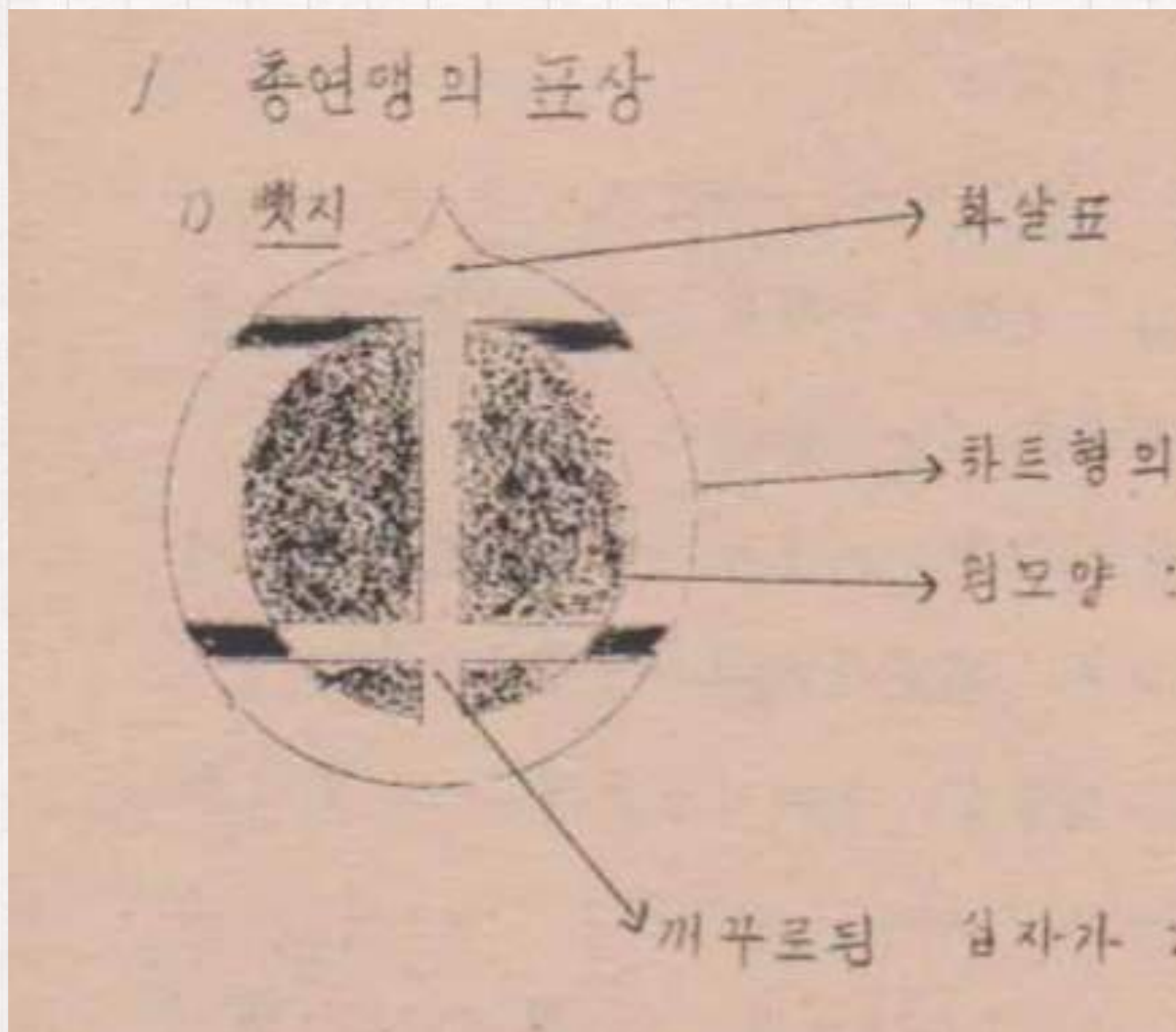
세계교회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아시아교회협의회 CCA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SCF 상징

이요셉(서울대 3학년, 22세) 학생이
1969년 11월 23일 만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Korea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2018년 (70주년 기념)

KSCF 역사

기원전 300 고조선
 기원전 50 - 668 삼국시대
 668-936 통일신라
 918-1392 고려
 1392-1897 조선
 1897-1910 대한제국,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 경쟁 본격화
 1910-1945 일제강점기
 1950-1953 한국전쟁



1959, 중·고등학교 KSCM 모임

1953-현재 한반도 분단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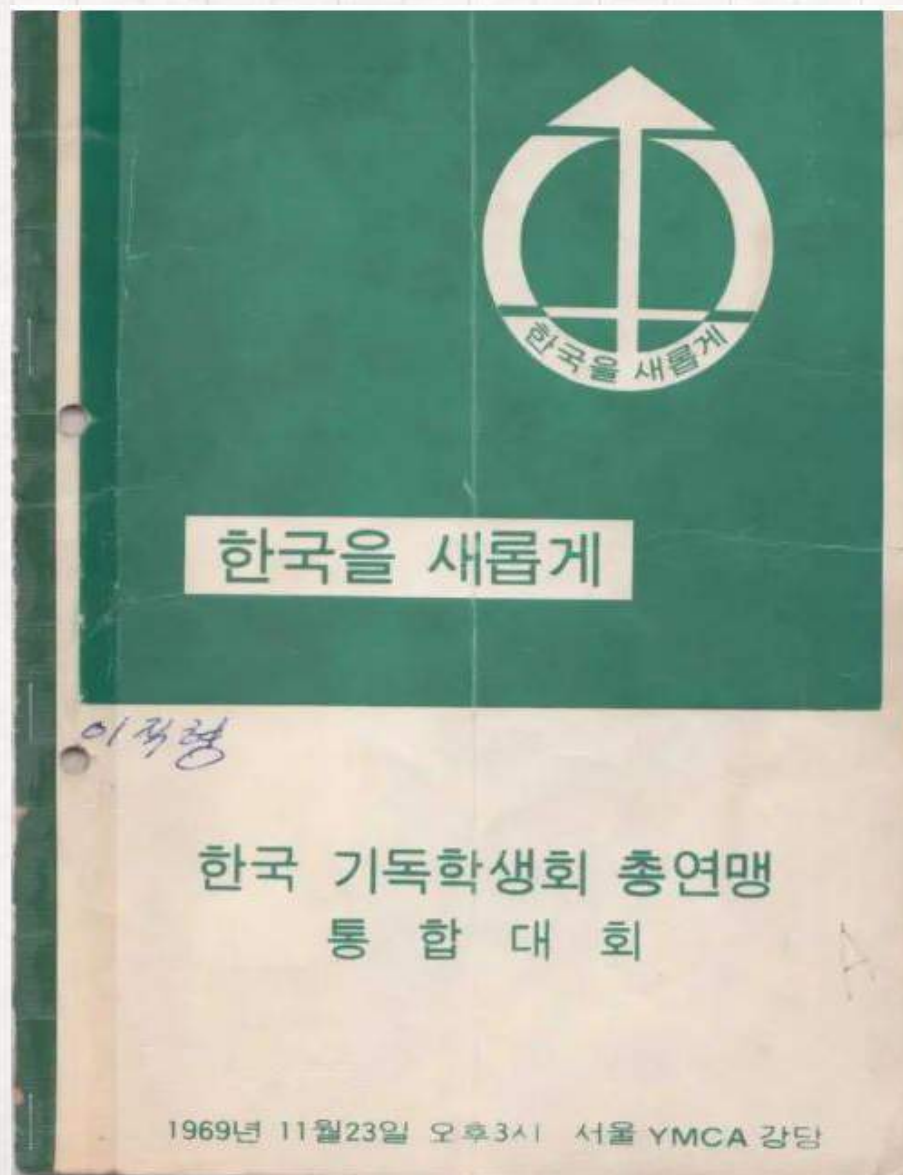
- 1901** YMCA(1844) 활동 개시
- 1914** YMCA 전국연합회 결성
- 1922** YWCA(1855) 활동 개시
- 1924** YMCA, WSCF(1895) 가입
- 1945** 대학교 및 고등학교 내 기독교학생 30여 개 그룹 모임
- 1948.04.25** 학생 YMCA, YWCA + 기독교학생 그룹이 모여 KSCF 결성
- 1957** KSCM(Korea Student Christian Movement)으로 이름 변경

KSCF 역사

1969.11.23 KSCF 설립

KSCM 대학부 + 대학 YMCA = KSCF

YWCA는 함께 하지 않았으며, KSCM 고등부는 KSCM으로 남기로 함.



1950년대 KSCF 강산순례단



1970년 1월, KSCF 신년맞이

KSCF의 모토

“한국을 새롭게”

1968년 스웨덴 옉살라에서 열린 WCC 총회의 주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요한의 묵시록 21장 5절)에서 따옴.

We are making **Korea** New!



1971,
박정희 군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십자가 데모



1987-88, 삭발 및 단식 투쟁



1992, 여름농활



2002, 미대사관 앞
효순이 미선이 사망 사건
기습 시위



2002,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
(금강산)

We are making **Koreans** New!



1959, 학생 농촌 의료봉사단



1964, 농촌 우물파기



1970, 지역 개발 캠프



1990년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요예배, 노동자들과 함께



1989, 4·19 기념행사,
전교조 해직 교사와 함께



1986,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회,
양심수 가족과 함께

We are making Korea**Asia** New!



**2008, ASYG (Asia-Pacific Students and Youth Gathering)
아시아태평양 학생 청년 모임**



**2012, KSCF-EYCK 아시아
에큐메니칼 트레킹**



**2013, 인도 오디샤,
포스코 반대 프로그램**



2021, 미얀마를 위한 기도



2016, 홍콩 에큐메니칼 트레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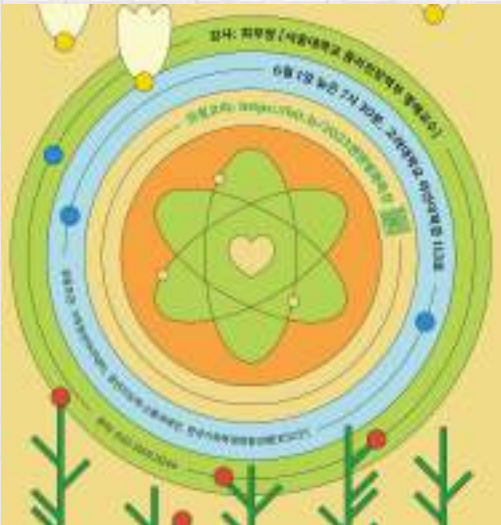


2015, 대만 에큐메니칼 트레킹

We are making Kor**Earth** New!



2022, 기후 위기 행동



2023, 과학으로 보는 기후 위기

KSCF 역대 총무



1대 강원용



2대 신성국



3대 성갑식



4대 박창목



5대 김형태



6대 손명길



대행 박상증



7대 박형규



8대 오재식



9대 신인현



대행 김용준



대행 이직형



대행 차선각



10대 안재웅



11대 정상복



12대 황인성



대행 김동완



13대 허종현



14대 정명기



15대 박종렬



16대 이광일



17대 김오성



18대 장병기



KSCF 문고 1. 학생과 사회정의

1.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왜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에 참여해야 하는가?

2. 우리가 한국의 사회 발전에 참여할 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1971년 7월 1일

제9대 신인현 사무총장(총무)

... ✧ ...

기독교학생사회개발단(학사단) 운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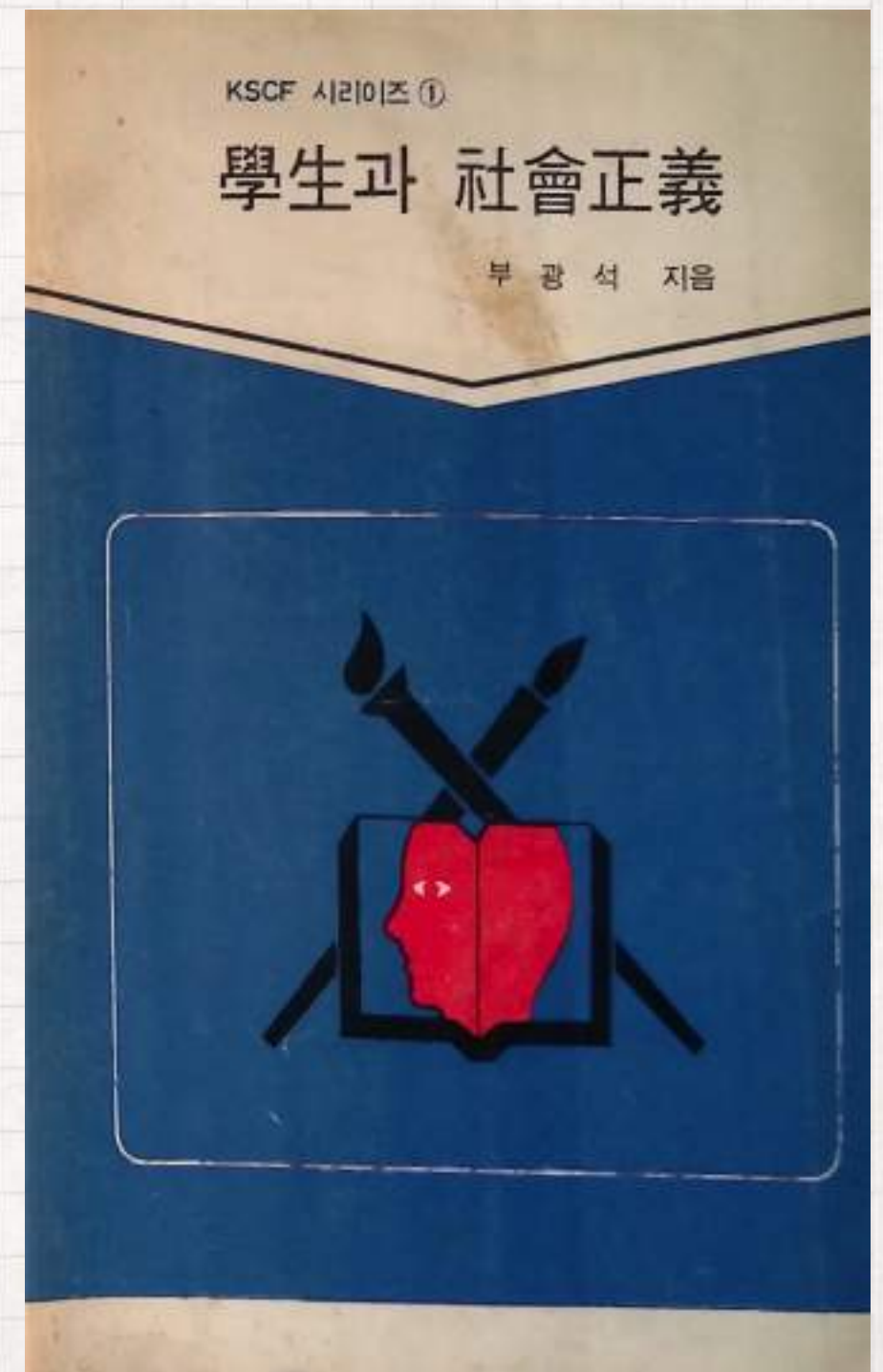
기독교학생들의 사회를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기초적인 책임을 느끼는 신앙적인 기독교 운동이며,

교회의 사회 참여의 한 방식으로 인정되었다.

기독교적 신앙을 그 운동의 근원적 원천으로 삼는 것이며,

신앙의 현실화로서의 사회 참여의 정신의 구현이라 하겠다.



KSCF 문고 1. 학생과 사회정의

송진섭 선배님과 학생과 사회정의 (2021년 9월 18일)

오늘 아침 KSCF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페북 페이지에 이 책이 올라왔네요.
저자 부광석 씨가 지난 70년대에 서독의 개신교 신학·경제학 박사로 한국에 와서
몇 년 있었을 때 저술한 책이지요.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나
서 강탈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하고 일어서도록 하는 임무와 역할이
기독교학생·청년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책이죠. 당시 이른바 (현실의 빈부격차, 재벌
독점, 군사독재권력 문제에 눈을 뜨고 나서야 한다는...) 세속화 신학, 희망의 혁명
신학, 그렇게 불렀죠.

YH사건(1979년)으로 민주화 운동이 불 붙었을 때 판매 금지 중이던 이 책을 몰래
1000원 마스터 인쇄로 만들어 전국 각 대학 기독교학생회와 중요 교회청년회에 돌
린 일(비밀 판매)로 악명 높던 중앙정보부 남산지하로 붙잡혀가서 엄청 얻어맞고
고생하고 반공법으로 기소됐던 기억이 오늘 아침 기억나는군요. 이때부터 저는 오
른편 귀 청각장애가 생겼어요 ^^

... ✦ ...

당시 붙잡혀간 사람 명단

서경석(EYCK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간사) · 조성우(고대 75학번) · 이혜자(고대 74학번)
최규삼(사망 · 인쇄업자 · 임원) · 송진섭(EYCK간사)



KSCF 문고 2. 한국근대사 연구방법

제 나라 역사를 바로 이해하여야만이
올바른 국민이라 하겠다.
한국사를 연구하고 이해하여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역사야말로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에게 살맛을 촉발시키고
무한한 저력을 공급하여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한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행위를 속속드리 체득하게 될 것이다.

1976년 4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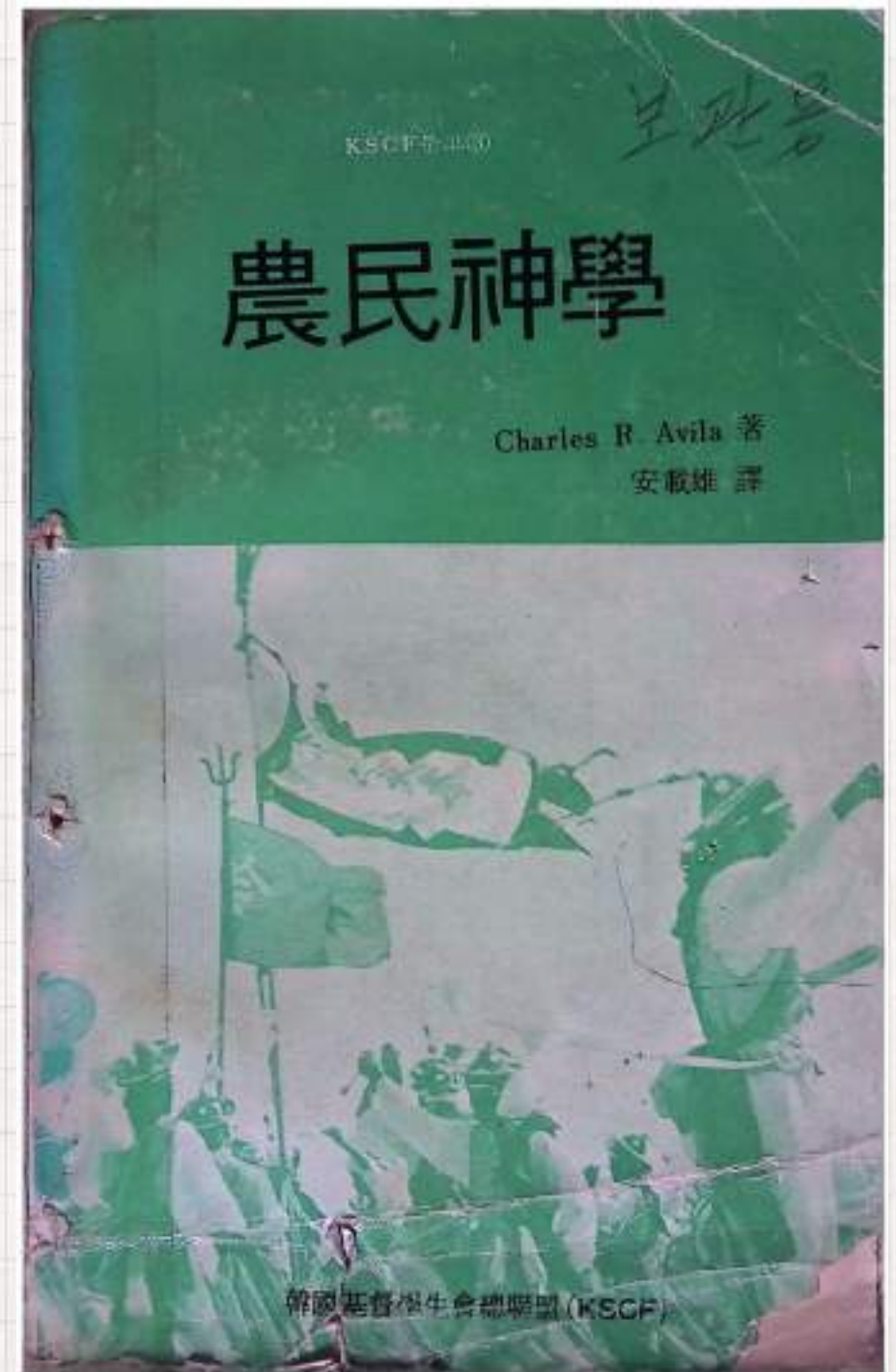
제10대 안재웅 총무



KSCF 문고 3. 농민신학

세계학생기독교연맹(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아시아 사무국이 출판한
“농민신학(Peasant Theology)”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저자 아빌라씨는
농민들의 애환을 예리한 눈초리로 파악한 나머지
농민 스스로의 토론을 여기에 담고 있다.
70년대를 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조그만 책이 다정한 벗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붓을 놓는다.

1976년 10월 10일
제10대 안재웅 총무



KSCF 문고 4. 인권

인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주신 고유한 권리이다.
인권은 서로가 존중하므로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말로만의 인권이 아니라 인권의 본래적인 의미를
학술적으로 추구해보고
이론적으로 규명해내기 위해서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에서는 인권강좌를 개설한 바 있다.
매강좌 때마다 인파로 뒤엎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만큼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은데서일까?
아니면 인권 그 자체를 바로 이해하려는 심리에서일까?

1978년 5월 8일
제10대 안재웅 총무



KSCF 문고 5. 제3세계의 기독교운동

흔히 제3세계라는 용어를 즐겨 쓰면서도
막상 그 지식의 부족을 절감해왔다.
국제 정치에서 흔히 쓰는 제3세계나 비동맹회의
따위에 관해서도 상식이 부족하다.
제3세계를 거론할 때 떼놓을 수 없는 없는
학생운동, 민중운동 및 기독교운동을
명쾌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제3세계의 대열에 서서 당당하게 전개해가는
한국기독교운동을 본서와 더불어
비교해 읽어 본다면 새로운 시사를 얻게 될 것이다.

1978년 11월 3일

제10대 안재웅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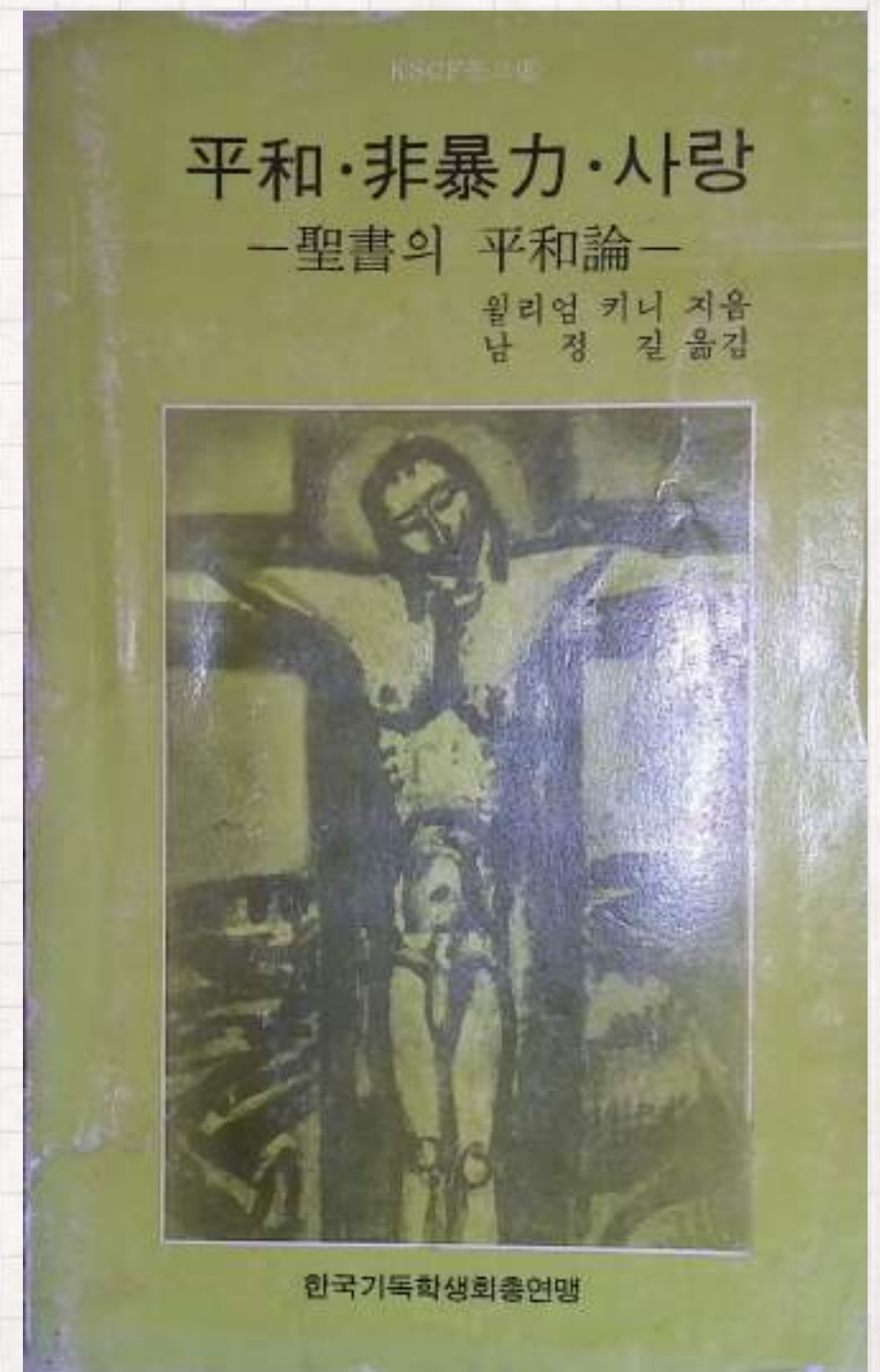


KSCF 문고 6. 평화·비폭력·사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그 형상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의 역사가
바로 세계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 책은 평화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명쾌하게 추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평화는 사랑을 바탕으로 비폭력적 방법에 따라 이룩될 때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평화는 기어코 이룩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는 외침을
이 책에 담고 있다.

1979년 10월 15일

제10대 안재웅 총무



KSCF 문고 7. 신학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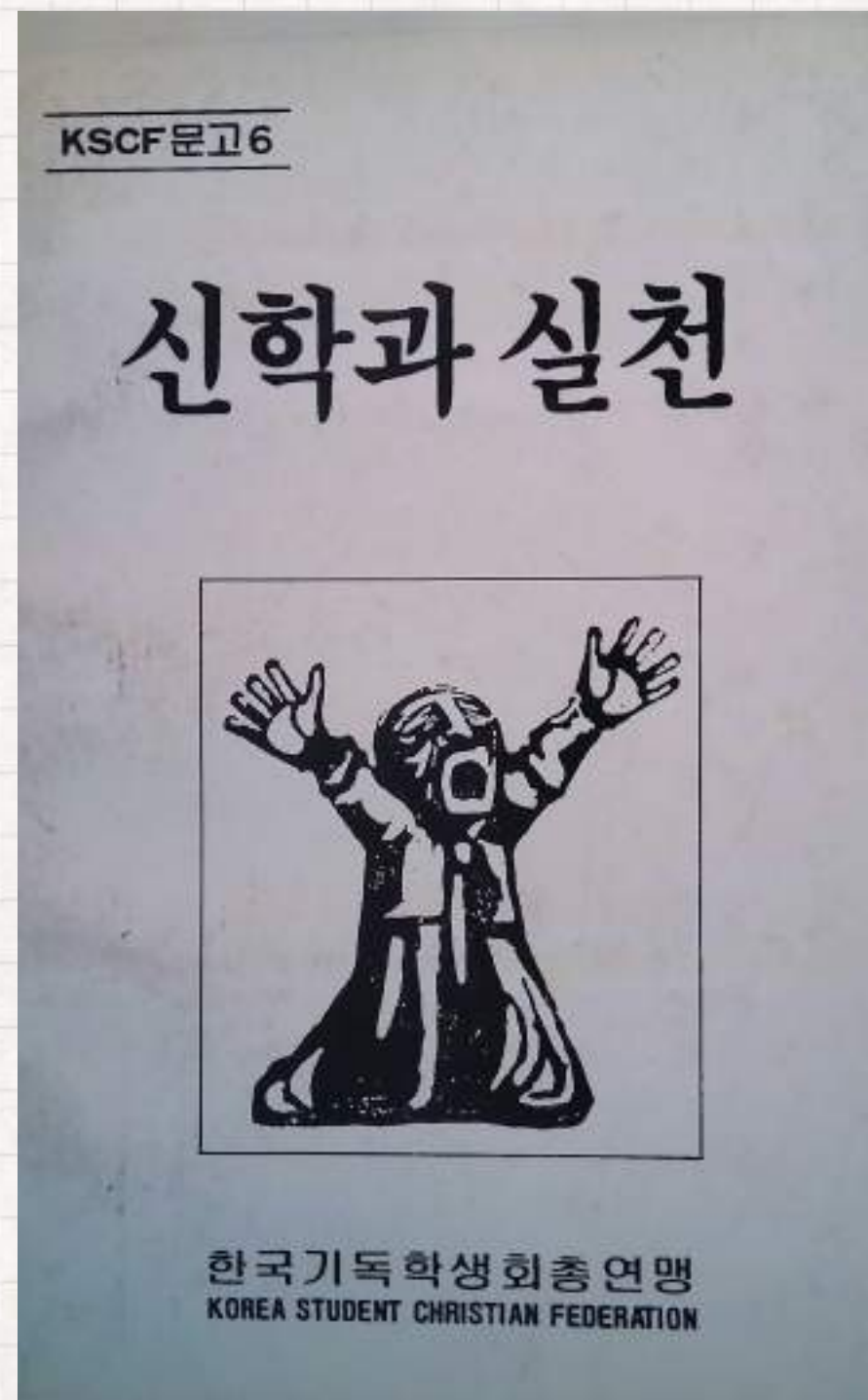
신학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작업이다.

“광주항쟁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등에 대해 신학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기독교학생의 질문을 우리도 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진행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젊은 기독교학생들의 보다 정확한 운동의 신앙적 기초를 보다 튼튼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우리의 작업은 때로는 논쟁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1985년 10월 19일 편집부

제12대 황인성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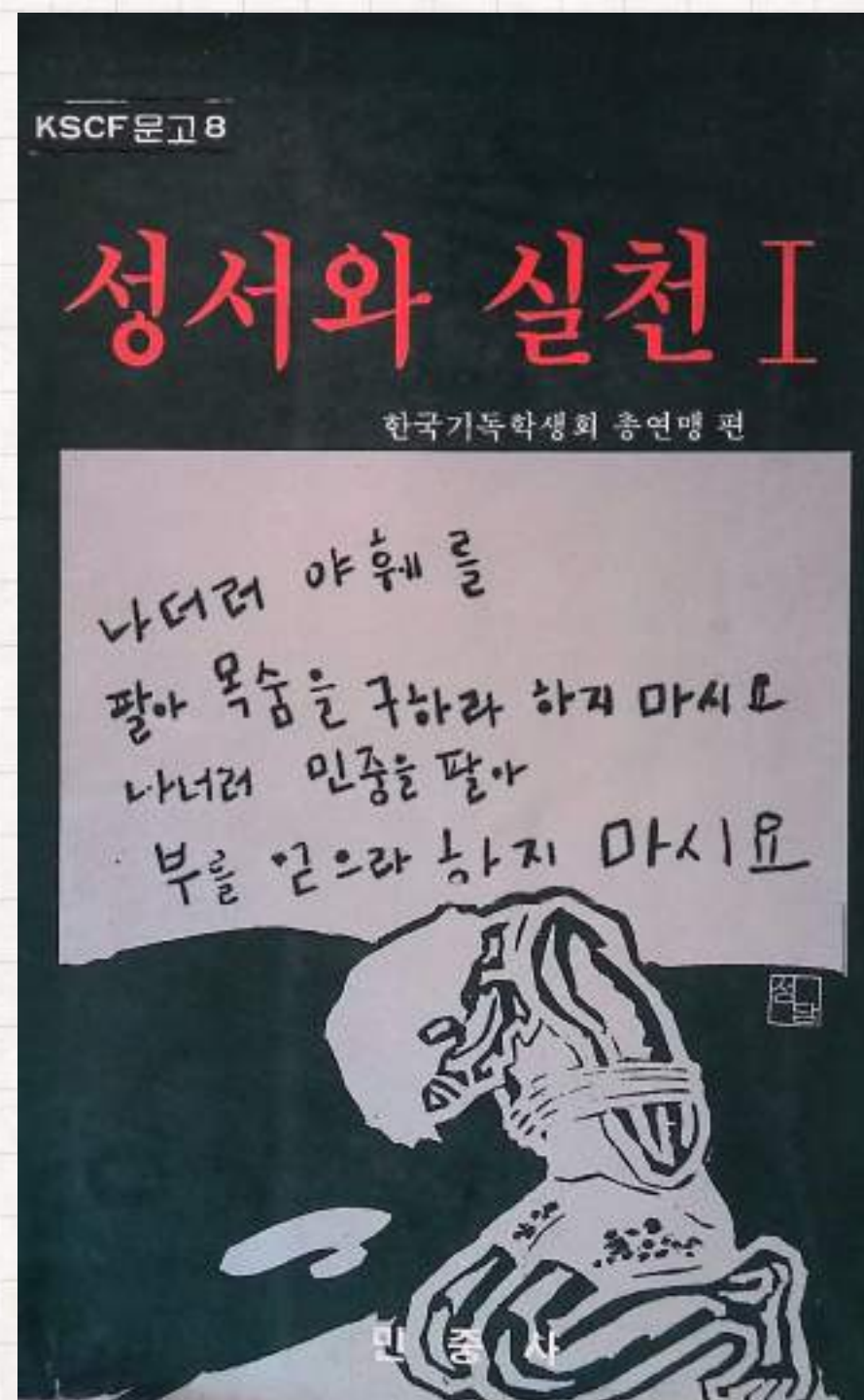


KSCF 문고 8. **성서와 실천**

**우리는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새로운 전환을 맞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고 계시고,
이 변혁의 시대에 우리의 민중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야 진정 우리는 고발하고 폭로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역사에 정면으로 대면해야 할 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사활이 걸린
시련의 과정에 들어갔다.
위기와 시련의 극복은 동일한 신념과 공동의 의식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고립되고 분산되어 개별화 되어진
우리의 삶은 극복 되어져야 할 때이다.**

1987년 3월 20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성서연구반

제12대 황인성 총무



KSCF 문고 9. **성서와 실천 II**

우리의 역사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쳐왔다.

6월 민주대항쟁, 7-8월 노동자들의 대투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610 남북학생회담...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과 제5공화국의 비리,

(88년) 분단 올림픽 등...

변혁의 시대 한가운데로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역사적 시기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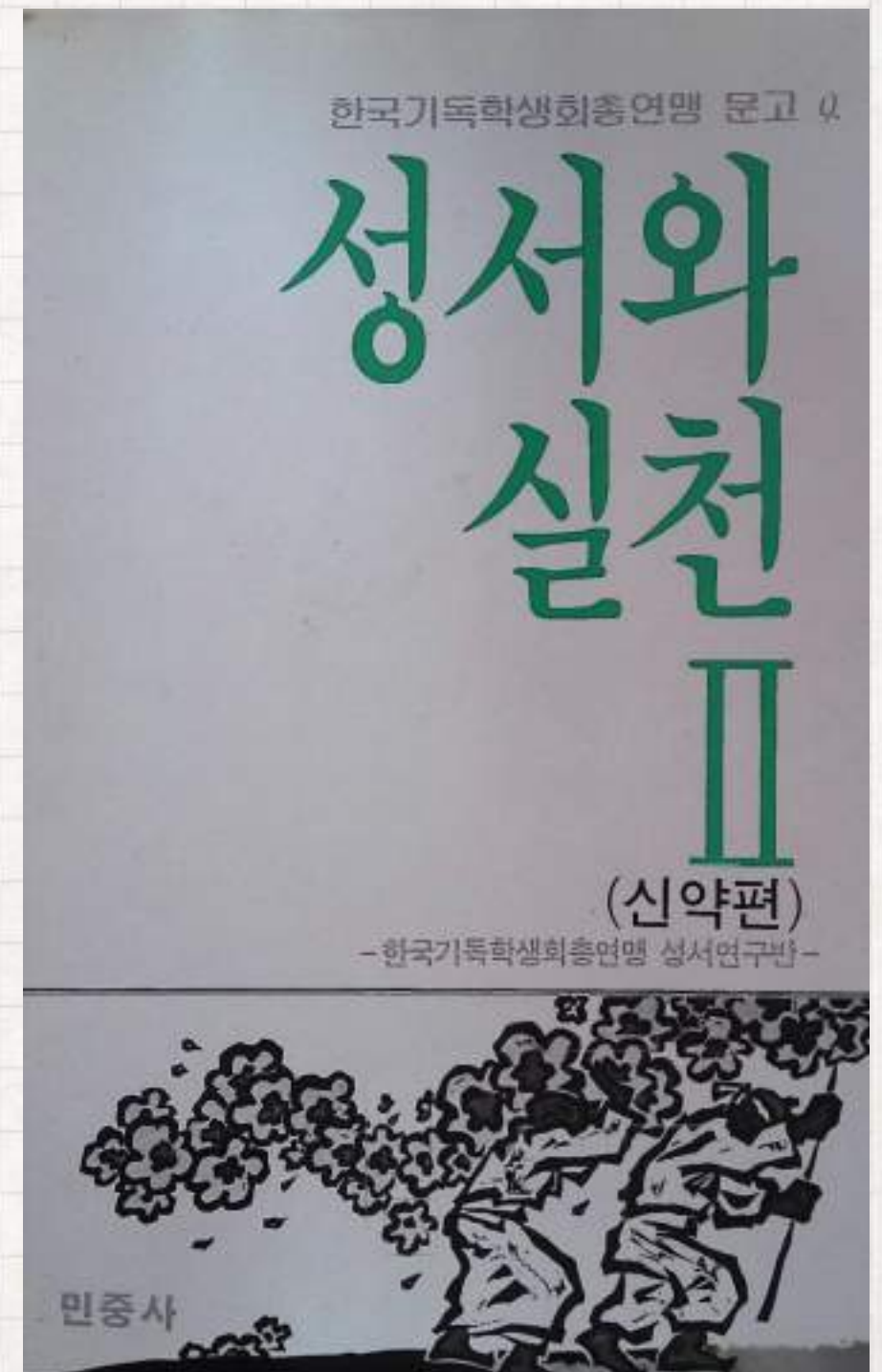
복음의 기쁜 소식을 구체적인 역사의 한 시기 속에서

민족공동체의 제 계층계급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칠 것인가?

1988년 11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성서연구반

제12대 황인성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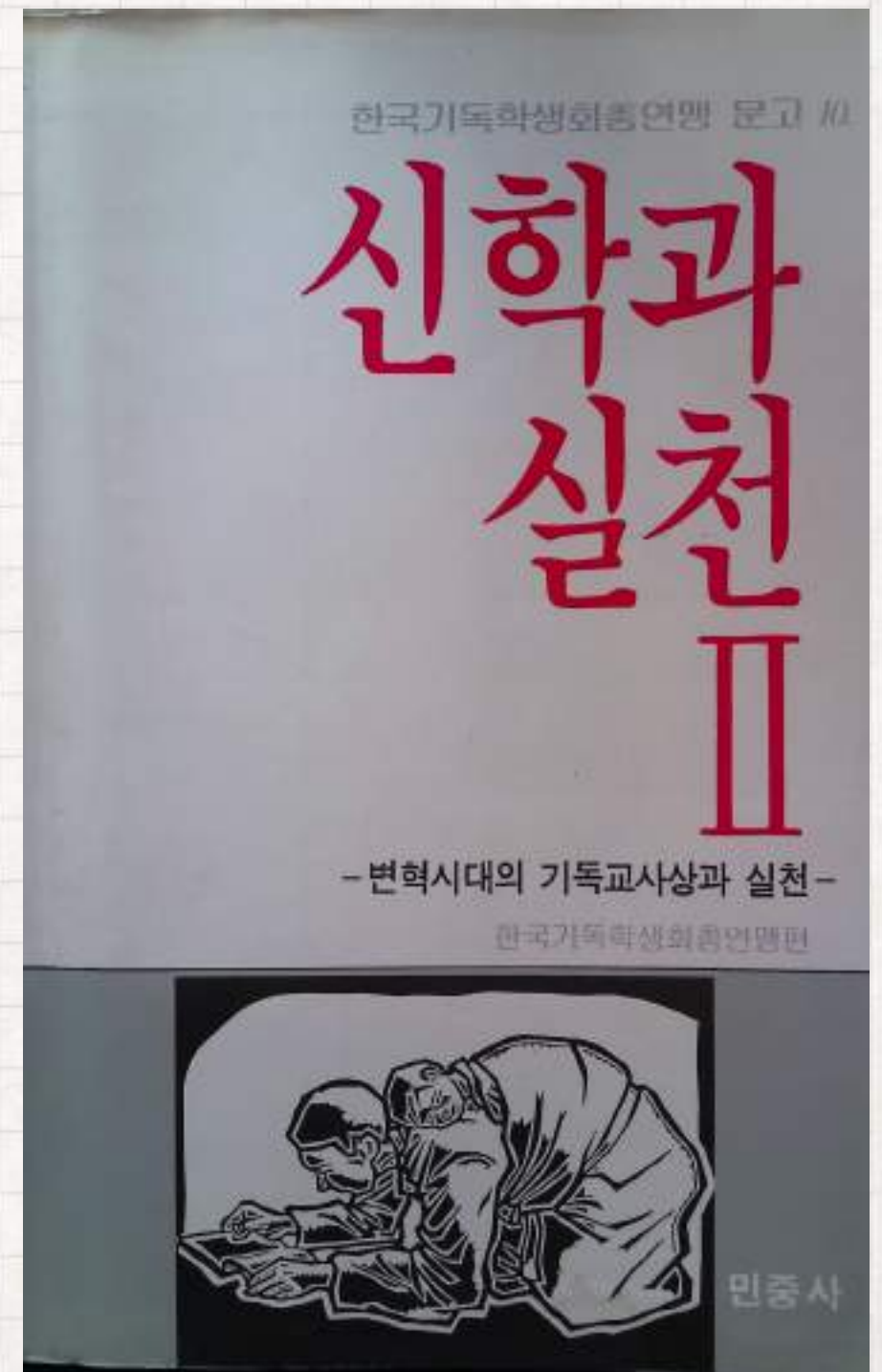


KSCF 문고 10. 신학과 실천 II

한국기독교운동이 요구하는 새로운 신학은
최소한 7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학이어야 한다.

1. 맑스주의 종교 비판 이후의 신학이어야 한다.
2. 민중적 세계관에 기초한 새로운 기독교 정체성에 입각해야 한다.
3. 성서의 민중전통, 교회사의 민중전통, 한국사의 민중전통을 합류시킨 신학이어야 한다.
4. 민족문제에 대한 심화된 인식에 기초한 신학이어야 한다.
5. 사회과학적 분석방법을 신학의 방법론안에 수용, 신학적 해석학의 유기적 구성부분으로서 통합적 신학이어야 한다.
6. 한국교회대중의 계급, 계층분석을 위한 특수한 이론적 모델을 창안해야 한다.
7. 신학하는 주체의 전이를 시도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1988년 12월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성서연구반
제12대 황인성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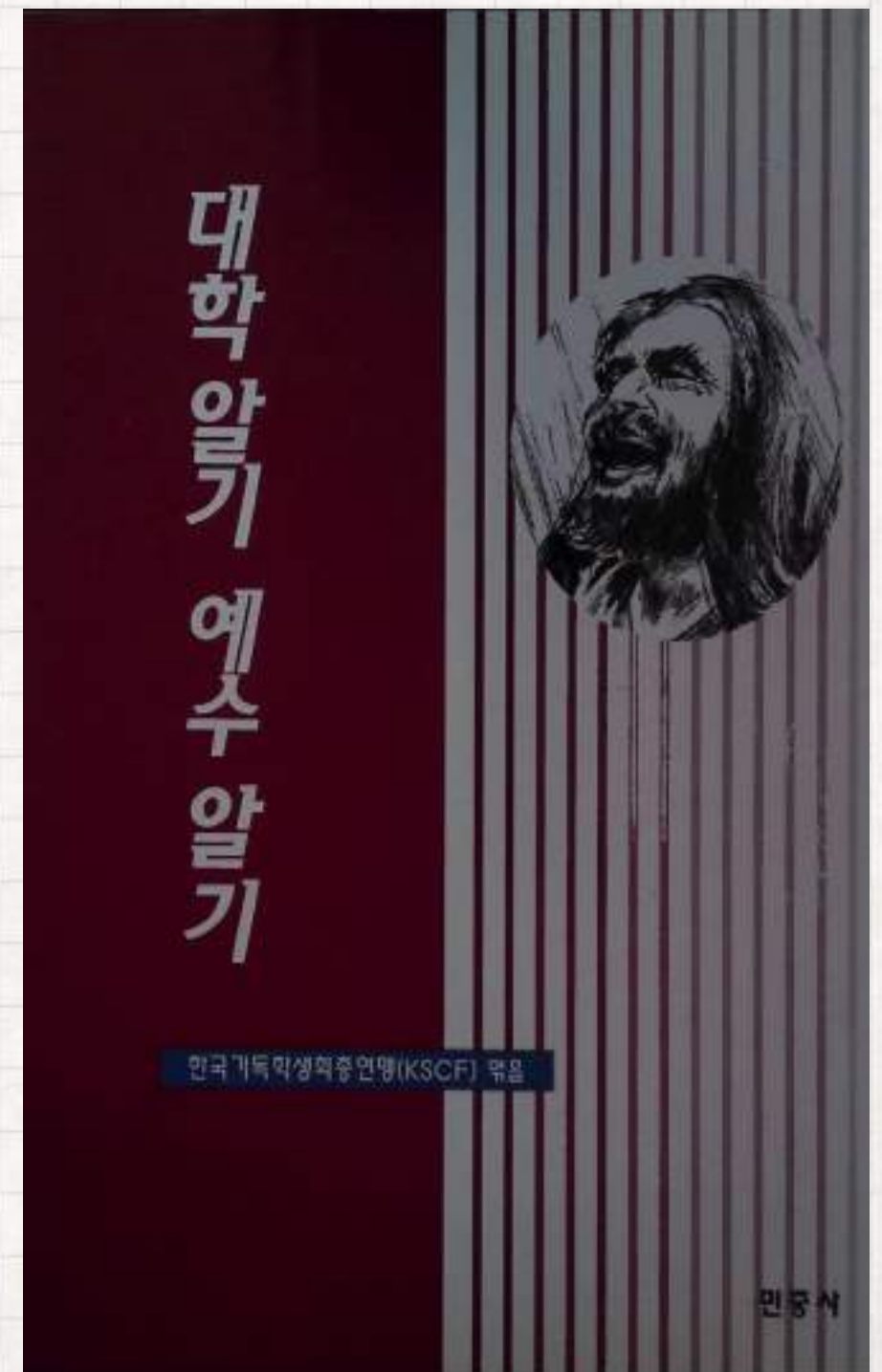


KSCF 문고 11. 대학 알기 예수 알기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은
어려운 한국상황 속에서도 일관되게
학원의 민주화, 교회의 갱신,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민주, 민중운동에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이념과 리더십을 제공해 오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의 질적 성장을 주도해왔다.
시대를 따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해 왔다.
학생기독교운동이 계속적인 현장경험을 통하여
심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1997년 3월

제15대 박종렬 총무



KSCF 문고 12. ■◎❖▲

제12권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2023년 9월 1일
제19대 총무 도방주

